

내년 교육 예산 117.6조... 10.6%↑

(전년대비)

지방국립대·AI 인재양성 집중투자

교육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4.9조 투입’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교부금 78.9조... 매년 증가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 6646억 ↑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117조 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본예산보다 11조2355억원, 10.6% 늘어난 규모다.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는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청년 지원,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관련 사업 4조9315억원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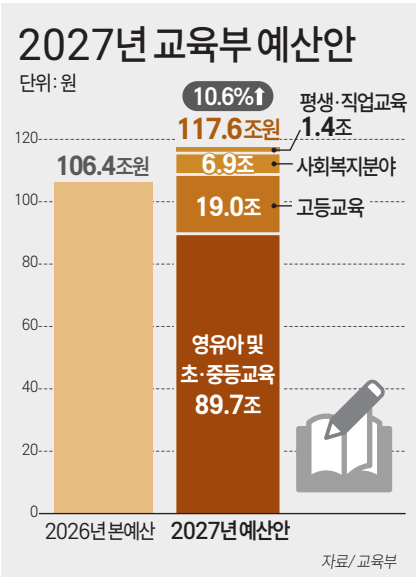
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9조7354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6189억원 증가했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 2031억원 증가한다. 교부금 산정 방식은 기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서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 지방국립대 지원 확대

지역·청년 지원에는 4조4655억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확대한다.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대학당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3280억원을 편성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 지원에 213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도 691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21개교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학생의 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는 46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6만

명의 실습학기 참여를 지원하고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급한다.

◆ 첨단·이공계·AI 인재양성 확대

첨단분야와 이공계, AI 인재양성 관련 사업에는 3조263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4856억원에서 내년 6646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대학을 128개교에서 170개교로 늘리고,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14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6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이공계 학과가 있는 일반대와 전문대 약 40곳의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과 전문대 40곳에서 성인학습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2년 내외의 AI 융복합 집중과정을 운영한다. 대학생 AI 공동육육 지원 사업에는 2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대학 컨소시엄이 AI 서비스를 공동계약하도록 국고와 대학이 5대5로 비용을 분담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1조 적자’ 경기도, 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

재정위기 극복 위한 3대 대책 제시
예산 재구조화·세제개편 등 논의

경기도가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는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10일부터 3주간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으로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고 광역단체 고유 사무에 재정을 집중한다.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와 투자사업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지난달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검토 결과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일몰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은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방소비세율 임기 내 40%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 정부 재원 조정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대곡·킨텍스역 북서부 광역교통 거점지로

환승센터 구축 국가계획에 반영
고양·파주측 거점 환승센터로

고양시가 대곡역과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경기 북서부 광역교통망 강화에 나선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축 거점 환승센터’로 이름을 올렸다. 대곡역

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비롯해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경기 북서부를 잇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꼽힌다. 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연계해 교통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역시 이번 기본계획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GTX-A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간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주말 불꽃축제 개최... 안전인력 6800명 투입

오는 4~5일 ‘서울세계불꽃축제’
원효대교·여의동로 전면 통제
지하철 5·9호선 총 65회 증회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간 열리면서 서울시가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 대책을 확대한다. 본행사 당일 원효대교와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 5·9호선은 증회 운행한다.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는 총 6800명의 안전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오는 4일 전야제와 5일 본행사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교통·안전·편의 분야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본행사 불꽃쇼는 5일 오후 8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여의나루역에 인파가 집중될 경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며 여의도역·마포역·셋강역 등 인근 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 /서울시

63발당 앞 구간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24개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오후 7~8시와 오후 10~11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을 지나는 버스 26개 노선이 집중 배치된다. 노들섬과 한강대교 일대 일부 정류소는 오후 4시부터 9시20분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은 5호선을 18회, 9호선을 65회 증회한다. 행사장 인근 21개 역에는 평소보다 3~5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한

다. 4일 전야제에는 평시 수준으로 운행하되 5·9호선에 비상대기열차를 각각 2편 성씩 준비한다.

여의도와 이촌 일대에서는 4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따릉이와 민간 전기자전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대여와 반납이 중단된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한국·미국·영국 3개국이 참여한다. 불꽃쇼는 ‘라이브서울’과 ‘한화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현진 기자



▲美·이란 충돌 다시 불붙었다...트럼프 “강력한 공격” 예고
▲유엔사무총장, 미-이란 교전재개에 “최대한의 자제” 촉구 /사진 뉴시스

▲중추절 대목 앞섰는데...中, ‘산사태’에 타토파니 네팔 무역로 폐쇄
▲日 내년 예산 1200조원 넘어 사상 최대...“방위비, 85조원 넘을 듯”

▲푸틴, SCO서 “우크라 종전 노력”...中에는 무비자 영구화 제안
▲美 신형 미사일 PrSM, 이란서 첫 실전 사용...민간인 21명 사망 의혹